

따뜻한 미술장터...장애인 예술가들의 미래를 응원합니다



2023광주에이블아트페어가 오는 23일부터 26일까지 김대중컨벤션센터 1전시관에서 열린다. 지난해 개최된 장애인아트페어 모습. <광주에이블아트페어 조직위 제공>

‘장애인 예술가의 풍부한 창작활동과 밝은 미래를 지원하는 마음 따뜻한 미술장터’

장애인 예술가의 예술 활동을 격려하고 나아가 작품의 창작, 향유, 유통을 견인하기 위한 미술축제가 마련돼 눈길을 끈다.

2023광주에이블아트페어(장애인아트페어·총감독 윤익)가 오는 23일부터 26일까지 김대중컨벤션센터 1전시관에서 열린다. 이번 아트페어는 (사)광주장애예술인협회가 주관하며 (재)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 문화체육관광부, 광주시가 후원한다. 다양한 부대 행사를 매개로 예술성과 대중성을 아우른다는 계획이다.

특히 양팔 없는 의수 화가 석창우, 세계적 명성의 쿠사마 야오이, 미주에서 명성을 떨친 불멸의 조각가 이원형 등을 비롯해 지역을 대표하는 허진, 김유섭, 최만길 등 국내외 대표 장애예술인 작품이 소개될 예정이다.

전자광 광주장애예술인협회장이자 '제2회 광주에이블아트페어' 운영위원장은 "이번 에이블아트페어는 시혜적 개념이 아닌 장애인들과 비장애인과 그리고 시민들의 융화를 토대로 어울림과 조화에 초점을 맞췄다"며 "광주의 인권정신과의 창조적 결합으로 예술 시장의 패러다임을 새롭게 정립하고 시너지 효과로 연결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3 광주에이블아트페어’

23~26일, 김대중컨벤션센터 4개 기획전, 231명 작가 참여 정은미 박사 ‘발달장애...’강연

행사는 4개의 기획전 부스에 231명 작가가 참여한 다.

윤익 총감독은 "미술 현장에서 묵묵히 순수한 예술의 길을 걷는 작가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마련했다"며 "서울의 아트젠트, 부산 리빙아트, 광주 화이트갤러리 등이 참여해 미술애호가의 눈길을 끌 수 있는 아트페어를 준비했다"고 밝혔다.

14개 부스로 구성되는 첫 번째 기획전 '에이블아트 특별전'은 광주와 전남에서 활동하는 장애, 비장애 미술인들로 꾸려진다. 71인 작가의 200여 점이 발표된다.

두 번째 전시는 22개 부스에서 열리는 '에이블아트 초대전'. 국내외를 대표하는 장애, 비장애 작가로 구성된다. 초대작가 111인의 300여 점이 소개될 예정이다.

라이징스타를 모티브로 하는 장도 있다. 세 번째 전시공간은 '에이블아트 라이징스타'로 4개 부스에 미술계를 이끌어갈 20인의 장애, 비장애 청년작가를 초대했다.

마지막은 5개 부스로 구성되는 '에이블아트 핫하트전'으로 전국에서 초대된 29인의 발달장애 작가들의 작품을 소개한다. 남다른 시각과 감성으로 역량을 유감없이 발휘하는 작가들의 독창적인 작품을 만날 수 있다.

다채로운 공연, 강연도 마련돼 있다. 클론 강연대강의, 정은미 박사의 '발달장애 작가 엄마의 생애 포트폴리오' 등은 감동을 선사할 것으로 기대된다.

조직위원장인 윤홍식 국민통신 대표는 "기업이 사회 속에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것은 기업의 이윤을 사회에 환원하는 것"이라며 "이번 아트페어는 아트렌탈 개념을 도입해 병원이나 학교 등 공공기관에서 많은 호응이 있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백현옥 공동조직위원장(송원대 교수)은 "이번 아트페어는 라이징스타를 발굴하는 데 주력하면서도 비장애인 일반 작가들도 아트페어 취지에 맞게 우정의 의미로 출연한다"며 "행사 참여를 통해 장애인 미술작가에게 힘과 용기를 보내주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한소리회 단체 사진

<광주아트홀 제공>

익숙한 재즈 멜로디에 금기 주제를 녹인다

한소리회 정기공연 '카바레 송'... 25일 광주디엠홀

'카바레 송'은 미국 재즈의 익숙한 멜로디, 단순한 리듬에 전쟁, 성(性)처럼 금기시되던 주제를 녹인 곡들이다. 프랑스의 폴랑크, 사티, 미국의 거슈인, 스페인의 피아졸라 등이 대표적인 작곡가로 손꼽힌다.

카바레 송을 한 자리에서 들을 수 있는 연주회가 마련된다. 제43회 한소리회(총감독 박미애) 정기공연 'Cabaret Songs'가 오는 25일 오후 3시 광주디엠홀에서 펼쳐질 예정이다.

공연은 소프라노들의 화려한 목소리로 가득 채워진다. 소프라노 김주아가 '내가 사랑하는 남자'를 노래하며, 노현숙은 '하늘 기차', '잘 지내세요'를 들려준다. 유희민은 '나의 노래', '난 여기가 낯설어요'를 부른다. 윤희정은 '세'와 '나의 배', 박미애는 '난 당신을 사랑하지 않아', '당신을 원해요' 등을 들려준다.

클라이맥스는 전 출연진이 다함께 부르는 뮤지컬 '걸 크레이지' 중에서 '난 리듬을 타고'가 장식한다. 음악에 탭댄스를 곁들여 화려한 리듬과 흥을 보여준다는 계획.

한소리회 박미애 총감독은 "클래식을 어렵게 생각하던 일반인들도 '카바레 송'을 들으며 클래식 레퍼토리를 대중적으로 감상할 수 있는 무대"라며 "가벼운 마음으로 오셔서 편하게 공연을 즐기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2000년 창단한 한소리회는 박미애, 장은영, 노현숙 등 광주·전남 중견 성악가들을 중심으로 지역에서 활발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는 음악 단체다.

/최류빈 기자 rubi@kwangju.co.kr

‘빛가람국제평화영화제’가 세계 평화를 기원합니다

24~26일 개최... 12개국 30여편 나주CGV 상영 국민배우 안성기 '김대중 노벨 평화 영화상' 수상

우러전쟁과 이팔전쟁 등 국제전이 계속되는 시점에서, 세계 평화를 기원하는 영화제가 막을 올린다.

국제평화영화제(사무총장 서권희·IPFF) 조직위는 '2023 빛가람국제평화영화제'를 오는 24~26일 빛가람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 일원에서 개최한다. 이번 영화제 주제는 '희망의 빛 함께하는 평화'로 12개국에서 출품한 30여 편을 소개할 예정이다.

개막작은 인종차별 정책에 저항해 온 남아프리카 공화국 최초의 흑인 대통령 만델라의 일대기를 담은 '만델라: 자유를 위한 마나먼 여정'이다. 김대중 전 대통령이 옮긴 넬슨 만델라의 자서전 '자유를 향한 마나먼 길'을 원작으로 삼는 작품으로 24일 오후 6시 30분 한정KDN 빛가람홀에서 관객들을 맞이한다.

본 영화제는 '김대중: 평화를 위한 행동', '월드시네마', '휴머니티 비전'이라는 세 가지 섹션으로 나눠 진행한다. 광주전남공동혁신도시 나주CGV에서 상영 예정.

먼저 '김대중: 평화를 위한 행동' 섹션에서는 애니툰 '정년사업가 김대중', 김진홍 감독의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박봉남 감독의 '미스터 선사인' 등을 선보인다. 이어 '월드시네마' 섹션의 스크린에는 '토리와 로키타', '어떤 영웅'을 올린다.

베를린영화제에서 금곰상을 받은 '알카라스의 여름', 칸영화제 심사위원상 수상작 '여덟 개의 산', 세 월호를 소재로 상처를 승화하는 내용을 그려낸 '장기자랑' 등은 '휴머니티비전' 섹션에서 보여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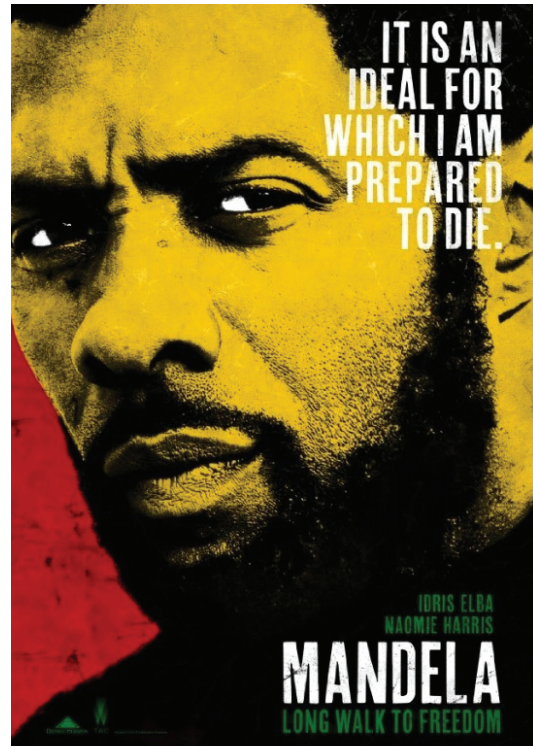
폐막작은 영화음악 거장 엔니오 모리코네의 영화사가 담겨 있는 '엔니오 더 마에스트로'다. 작품에는 세계적인 거장 쿠엔틴 타란티노등이 출연해 명작 탄생의 비화들을 이야기한다.

한편 영화제와 맞물려 올해 11회를 앞둔 '김대중 노벨 평화 영화상 시상식'도 개막식날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김대중 노벨 평화 영화상'은 문화예술 발전과 육성에 관심을 기울였던 김대중 전 대통령의 평화정신을 계승한다는 목적에서, 영화인 등에게 수여하고 있는 상이다. 올해 수상자는 65년간 연기 내공을 펼치면서 100편 넘는 영화에 출연한 국민배우 안성기(신영균예술문화재단 이사장)가 선정됐는데 유니세프 활동 등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다.

빛가람국제평화영화제 서권희 사무총장은 "세계



배우 안성기



'만델라: 자유를 위한 마나먼 여정'

인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영상예술'을 매개로 국제평화를 기리는 영화제를 마련했으니, 광주 시민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라고 말했다.

/최류빈 기자 rubi@kwangju.co.kr

한희원 작가와의 대화 '존재와 시간'

21일 광주시립미술관 세미나실

광주시립미술관 5.6 전시실에서 '존재와 시간' 전(12월 17일)을 열고 있는 한희원 작가와의 대화 시간이 마련됐다. 오는 21일 오후 2시 시립미술관 세미나실.

한 작가가 참여해 작품 제작과정 및 작품 세계에 대해 설명할 예정이며 무등일보 조덕진 주필이 토론자로 참여한다.

한 작가는 "작가와 대화 시간에는 탄생부터 죽음 사이에 드리워진 다채로운 감정들, 일테면 사랑이나 기억, 상처 등이 발현하는 감정에 대해 이야기할 예정"이라며 "존재의 시간에 대한 단상은 인간이면 누구나 느끼는 감정일 것"이라고 말했다.

광주 출신 한 작가는 1970년대 민중미술을 토대로 50여 년간 자신만의 작품세계를 열어왔다. 1980년대는 세상과 함께 하는 작업을, 1990년부터는 서정성과 인간의 내면을 드러낸 작업을, 2020년대 이후에는 존재와 본질의 서사를 모티브로 하는 작업을 펼쳐왔다.

조선대 미술교육과를 졸업한 한 작가는 남구 곳모닝 양림축제 추진위원장을 맡고 있다. '대지, 별, 바람 그리고 생의 시간' 전(한전아트센터)을 비롯해 다수



한희원 작가

의 개인전 개최와 '이방인의 소모' 등을 발간했다. 광주시민대상을 비롯해 원진미술상, 대동미술상 등 다수의 상을 수상했다.

한편 김준기 광주시립미술관장은 "이번 작가와의 대화는 그동안 한 작가가 추구해온 작품세계와 그가 생각하는 예술의 본질 등을 다채롭고 진솔하게 들을 수 있는 시간"이라며 "다양한 미적 담론이 폭넓게 논의되고 확장되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1982 - 2022

국제보청기 40주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고객에게는 신뢰와 만족”



국제보청기

- ✓ 필요한 소리만 똑똑히 들립니다.
- ✓ 작은 사이즈로 착용시 거부감이 없습니다.
- ✓ 정직한 우수상품 가격부담이 없습니다.

- 본점** 서석동 남동성당 옆 062) 227-9940 062) 227-9970
- 서울점** 종로 5가역 1층 02) 765-9940
- 순천점** 중앙시장 앞 061) 752-9940